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 389-400, 2014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5(3) : 389-400, 2014

<http://dx.doi.org/10.7856/kjcls.2014.25.3.389>

##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 유아의 정서표현을 매개로 -

배 선 미 · 최 영 희<sup>†</sup>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Bae, Seon Mee · Choi, Young Hee<sup>†</sup>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Suwon University, Hwaseong, Korea

####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The participants included 310 mothers o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from two kindergartens and four day 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do. The mother's empathy was measured using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e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Index.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was assessed using a questionnaire from previous research. First, older mothers and less educated mothers showed a higher level of empathy. Mothers over the age of 30 were more likely to have the ability to imagine other roles in movies or books, and to show empathic concern than those under 36. Mothers without a college degree showed a higher level of perspective-taking than those with a college degree. Second, girl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prosocial behaviors and show emotional expressions than boys. Three-year-old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share than two-year-old children, showed more initiative than two- and four-year-old children. Third, the mother's perspective-taking and empathic concer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al expression. The mother's personal distress was related to the child's control over emotions and awareness of other's emotion. Finally,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Key words:** mother's empathy, child's prosocial behavior, child's emotional expression, mediating effect

접수일: 2014년 8월 13일 심사일: 2014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24일

<sup>†</sup>**Corresponding Author:** Choi, Young Hee Tel: 010-2609-0599

e-mail: [heechoi@suwon.ac.kr](mailto:heechoi@suw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위해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Wispe 1972)으로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동이다(Hong 1980). Early childhood education dictionary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2003)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나타내는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되며 사회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다(Hwang 1996).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본 연구들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거나(Kim & Jung 1998) 성차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Chang 1992). 유아의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Kim(2005)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대해서 Kim(2005)은 만 3세와 4세 사이에, Hwang(1996)은 만 4세에서 5세에 급격히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 & Jung(1998)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차이가 없다고 논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이라는 정의(Early childhood education dictionary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를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발달된다.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정서지능이라는 점(Salovy

& Mayer 1996)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발달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어떤 아동은 공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정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서를 바르게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이 정서지능의 기초이다(Salovy & Mayer 1996).

자신의 정서 인식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타인의 표정, 언어, 몸짓 등에서 나타나는 단서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기초로 발달한다. 유아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상황에 알맞은 정서 표현은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타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타인이 느끼는 정서를 알고 타인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알며,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자녀 역시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향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며 친사회적 기술을 배워 사회에 적응해간다(Kim 2003; Hwang 2005). 부모가 유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아의 욕구를 알아 그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면 유아는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워간다.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에 기초를 둔 정신 내적인 현상은 공감이며(Han 2003),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Rogers(1975)는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과 심리상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감이 진정한 공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감한 것을 전달해야 한다(Aspy 1975). 그래야 공감 받았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Hong(2005)은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타인과 동일하게 경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공감에는 정서적 요소

와 인지적 요소의 두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Davis 1980) 인지적 요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동기를 인지해내는 기능으로 그 과정에서 지적인 추리와 상상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상태와 사회적 상황에 같이 머무르는 능력이다(Park 2010).

공감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 공감 받았음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를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 어머니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Kim 2002; Kang 2004; Seo 2006). 어머니의 공감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발달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Moon(2006)는 어머니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는 경우에 유아는 문제행동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어머니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직접 살펴본 연구들은 접하기 어려웠으나 부모의 공감이 양육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논의한 Yoon(2010)의 고찰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 연구를 통해 공감 능력의 차이를 추론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고(Manh 2008) 적대적 태도는 낮게 보인다는 연구들(Manh 2008; Park 2014)로 미루어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공감적 태도가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Manh(2008)의 연구에서 한국의 어머니와 베트남 어머니 모두 40세 이상인 어머니들이 39세 이하인 어머니들에 비해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적게 보이고 애정적이고 온정적 태도는 높게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Park(2014)의 연구에서는 30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40세 이상의 어머니들보다 거부적 태도를 높게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Ren(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어머니들이나 연변의 어머니들 모두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Ren(2002)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였다.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의 어머니들보다 애정적 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Park(2014)

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양육태도와 상관이 높은 공감 능력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유아의 정서능력도 상관이 있었다. Kim(2004)과 Ahn(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역할지능이 유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역할지능의 하위요소 중 공감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Moon(2006)은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분노조절과 두려움 조절이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여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정서 및 정서조절과 밀접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서 능력과 상관이 되며, 어머니의 공감 능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과 유아의 정서인식 및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유아의 정서조절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인식과 표현이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은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공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유아의 정서표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H시에 소재한 2개 유치원과 4개 어린이집에서 만 2~5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동의하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580부를 배부하여 337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응답과 부실 기재된 27부를 제외하고 총 31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아가 157명(50.6%), 여아가 153명(49.4%)였고, 2세가 32명(10.3%), 3세가 68명(21.9%), 4세가 58명(18.7%), 그리고 5세가 152명(49%)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44명(14.2%), 31-35세가 77명(24.8%), 36-40세가 129명(41.6%), 그리고 41세 이상이 60명(19.4%)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91명(29.4%), 전문대졸이 75명(24.2%),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4명(46.5%)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공감

어머니의 공감은 Davis(1994)의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s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201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그리고 개인적 고통의 4 영역으로, 각 영역마다 7개 문항이 포함되어 총 28 문항으로 되어 있다. 관점취하기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경향성이며, 상상하기는 상상 속에서 책이나 영화, 연극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경향성이다. 공감적 관심은 불행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걱정을, 개인적 고통은 대인관계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에 대한 느낌을 조사하고 있다.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는 공감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며,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차원의 공감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그리고 개인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어머니 공감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관점취하기가 .77, 상상하기가 .78, 공감적 관심이 .76, 개인적 고통이 .81, 그리고 전체는 .78로 양호하였다.

####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Kim(2003)의 유아 친사회적 행동평가척도를 간편형으로 재구성한 Seo(2006)의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어머니가 평가하였으며 나누기, 도움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누기는 놀이감이나 소유물 나누기를 측정하고 3개 문항으로, 도움주기는 또래의 과제를 돕거나 함께 놀이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4개 문항으로 또래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격한 감정을 가라앉혀 나타내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도성은 4개 문항으로 어려움에 처한 또래를 격려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영역별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나누기는 .87, 도움주기는 .85,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73, 지도성은 .77이었으며 친사회적 행동 전체의 신뢰도는 .83으로 양호하였다.

#### 3) 유아의 정서표현

유아의 정서표현은 Salovey & Mayer(1996), Goleman(1995), Saarni(1990)의 연구를 토대로 Lee(1997)가 제작한 질문지를 Lee(2005)이 수정한 도구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인 유아의 정서인식·표현능력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어머니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자기정서인식·표현능력을 측정하는 6문항과 타인정서인식능력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정서인식·표현능력은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러한 기분을 적절히 말로 표현할 줄 알고 표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타인정서인식능력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인식하고 그 반응에 감정이입을 하여 반응하는 능력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정서인식과 표현 및 타인정서인식 능력이 높은 것이다.

유아의 정서표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자기정서인식·표현능력이 .85이고 타인정서인식능력이 .81이었으며 전체는 .87로 양호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자료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공감은 중간 수준보다 높았으며 공감의 하위영역에서 공감적 관심이 가장 높고 개인적 고통이 가장 낮았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도 중간 수준보다 높았고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가 가장 높은 정도를 보였다. 유아의 정서표현 역시 중간 수준보다 높았으며 정서표현의 하위영역에서 자기정서인식·표현능력이 타인정서인식능력보다 높았다.

#### 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공감 차이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어머니의 공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개인적 고통을 제외한 공감 영역에서 연령차이가 있었다. 41세 이상

의 어머니가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및 상상하기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관점취하기는 41세 이상의 어머니가 다른 연령의 어머니들보다 높았으며, 공감적 관심은 41세 이상의 어머니가 가장 높고 다음이 36-40세 어머니가 높았다. 다른 역할을 상상하는 정도 역시 41세 이상의 어머니가 가장 높았으나 36-40세 어머니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공감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접하기 어려워 양육태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40세 이상의 어머니가 적대적 양육태도가 낮고(Manh 2008; Park 2014) 온정적 태도는 높았다(Manh 2008)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연령의 어머니보다 온정적 태도가 높았다는 연구들과 공감능력이 높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연결시킬 때 양육태도와 공감은 관계가 높다는 Yoon(2010)의 고찰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공감적 관심을 제외한 공감 영역들에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에 비해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이 높았다. 전문대 졸업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높았다. 개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Variable	M	SD
Mother's empathy	Perspective-taking	2.85	.33
	Imagining other roles	2.72	.43
	Empathic concern	2.91	.38
	Personal distress	2.56	.32
	Total	2.76	.32
Child's prosocial behavior	Sharing	2.99	.52
	Helping	2.96	.47
	Empathy · control over emotion	2.83	.47
	Initiative	2.82	.48
	Total	2.90	.40
Child's emotional expression	Awareness of self emotion · emotional expression	3.21	.47
	Awareness of others' emotions	2.99	.36
	Total	3.10	.36

Table 2. Differences in the mother's empathy according to her education level

		Perspective-taking	Imagining other's role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Age	Under 30	2.82(.38) <sup>a</sup>	2.61(.41) <sup>a</sup>	2.73(.39) <sup>a</sup>	2.62(.38)
	31~35	2.82(.27) <sup>a</sup>	2.62(.36) <sup>a</sup>	2.78(.27) <sup>a</sup>	2.49(.34)
	36~40	2.81(.35) <sup>a</sup>	2.75(.45) <sup>ab</sup>	2.96(.40) <sup>b</sup>	2.57(.29)
	Over 41	3.00(.33) <sup>b</sup>	2.84(.43) <sup>b</sup>	3.10(.32) <sup>c</sup>	2.57(.27)
	F	5.07**	4.23**	13.61**	1.85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or less	2.81(.27) <sup>a</sup>	2.61(.41) <sup>a</sup>	2.87(.42)	2.51(.28) <sup>a</sup>
	College degree	3.00(.34) <sup>b</sup>	2.84(.40) <sup>b</sup>	2.94(.33)	2.67(.38) <sup>b</sup>
	More than a college degree	2.79(.35) <sup>a</sup>	2.72(.44) <sup>ab</sup>	2.92(.37)	2.53(.29) <sup>a</sup>
	F	11.02**	5.94**	.84	6.90**

\*\*p<.01

a, b : Scheff'e test

적 고통은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이나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전문대졸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 어머니들보다 역할 상상하기가 높았다. 전문대졸 어머니들의 공감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Kim 2011a) 대졸 이상 어머니들이 고졸 이하 어머니들보다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결과(Ren 2002)가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전문대 졸업 어머니들의 공감이 특히 높았던 것은 좀 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 차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서 감정이입과 조절, 지도성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정도를 보였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의 감정에 공감하고 격한 감정을 조절을 하는 정도, 또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성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나누기, 도움주기, 자기정서인식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ark (2002)와 Hong(2008)의 연구에서도 여아의 감정이입과 조절, 지도성이 남아보다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도움주기와 나누기에서 Hong(2008)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더 친사회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성차가 보고되는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에서 연구들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고 논할 수 있다.

정서표현에서는 타인정서인식에서 성차가 나타났다으나 자기정서인식과 표현에서는 성차가 보이지 않았다. Kim(2011a)의 연구에서도 자기정서인식에서는 성차가 보이지 않았으나 타인의 정서인식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성역할의 사회화 압력에 기인한 결과라는 An(2005)의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사회에서 기대하므로 여아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더 잘 발달시킨다고 논할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누기와 지도성, 자

Table 3.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al expression according to the child's sex and age

	Prosocial behavior				Emotional expression		
	Sharing	Helping	Empathy · control over emotion	Initiative	Awareness of self emotion	Awareness of other's emotion	
Sex	boys	3.00(.58)	2.95(.53)	2.77(.49)	2.72(.50)	3.18(.51)	2.93(.36)
	girls	2.98(.45)	2.97(.41)	2.89(.45)	2.92(.45)	3.25(.42)	3.04(.35)
	t	.33	-.26	-2.31*	-3.76**	-1.34	-2.82**
Age	2yrs.	2.67(.49) <sup>a</sup>	2.83(.39)	2.67(.47)	2.70(.40) <sup>a</sup>	3.13(.37) <sup>ab</sup>	3.08(.31)
	3yrs.	2.96(.42) <sup>b</sup>	3.02(.46)	2.92(.56)	2.94(.56) <sup>b</sup>	3.36(.50) <sup>b</sup>	2.97(.37)
	4yrs.	2.96(.61) <sup>b</sup>	2.91(.55)	2.79(.51)	2.71(.51) <sup>a</sup>	3.05(.49) <sup>a</sup>	2.90(.39)
	5yrs.	3.09(.51) <sup>b</sup>	2.96(.47)	2.84(.40)	2.82(.44) <sup>ab</sup>	3.22(.44) <sup>ab</sup>	3.01(.35)
	F	6.51**	1.58	2.33	3.27*	5.33**	2.11

\*p<.05, \*\*p<.01

a, b : Scheff'e test

기정서인식에서 나타났는데, 2세 유아가 3세 이상 유아에 비해 자신의 소유물을 또래와 나누기에서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3세 유아는 2세와 4세 유아에 비해 또래 관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성이 높았다. 또한 3세 유아는 4세 유아에 비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고 적절히 행동이나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정서인식과 표현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3세 유아는 2세 유아에 비해 나누기와 지도성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고 4세 유아에 비해 자기정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2세 유아보다 3세 이상의 유아들이 나누기의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것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다는 Jang et al.(2003)의 결과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세 유아는 3세 유아에 비해 지도성이 낮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는 Jang et al.(2003)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 한편 정서표현에서는 4세 유아에 비해 3세 유아의 자기정서 인식과 정서표현이 높았는데 이는 유아의 정서표현을 교사가 평가한 Seong(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과였다. 그러나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서표현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Kim 2003)와 정서인식이 변화한다는 결과(Kim & Seo 2002), 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Kim 2011a)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유아의 정서인식과 표현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3세 유아의 자기정서표현이 4세아 보다 높다는 점은 본 연구와 Seong(2007)의 결과가 일치한다. 이는 3세가 되어 언어 표현이 발달하면서 부모나 교사가 보기에 유아의 정서표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사가 3세아가 4세아보다 자기정서인식과 표현이 높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어머니의 공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유아의 정서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공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취하기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적 관심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 전반에 걸쳐 모두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공감 하위요인 중 공감적 관심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11b)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ha(2012)와 Kim(2002)의 연구에서 보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empathy,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and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1	2	3	4	5	6	7	8	9	10
1 Perspective-taking	1.00									
2 Imagining other roles	.03	1.00								
3 Empathic concern	.37**	.55**	1.00							
4 Personal distress	-.22**	.10	.01	1.00						
5 Sharing	.29**	.04	.24**	-.12	1.00					
6 Helping	.29**	.18*	.40**	.00	.63**	1.00				
7 Empathy · control over emotions	.36**	.21**	.31**	-.22*	.63**	.63**	1.00			
8 Initiative	.19**	.22**	.32**	-.03	.34**	.57**	.60**	1.00		
9 Awareness of self-emotion	.19**	.17**	.32**	-.01	.36**	.47**	.32**	.42**	1.00	
10 Awareness of others' emotion	.39**	.06	.25**	-.19*	.39**	.52**	.60**	.55**	.52**	1.00

\*p<.05, \*\*p<.01

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어머니가 영화나 연극의 인물을 상상하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상상하기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자기정서인식과 높지는 않으나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에 비해 어머니가 긴장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감인 개인적 고통은 유아의 감정입과 정서조절, 타인정서인식과 약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개인적 고통이 자녀의 감정입 및 조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한 감정을 보이는 것이 자녀의 감정입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모든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자기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은 것은 또래들과 나누고 또래들을 도우며 놀이를 주도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친사회성이 높았다.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친사회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Kim et al. 2003)나 유아의 정서인식 수준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An & Park 2006; Hong

2008)와 같은 결과로서, 유아의 정서표현과 친사회적 행동과는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단계의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리고 매개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그리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정서표현 간의 관계가 유의하여 이 조건에 해당되었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Step 1 Child's emotional expression( $\beta$ )	Step 2 Child's prosocial behavior( $\beta$ )	step 3 Child's prosocial behavior( $\beta$ )
Mother's empathy	.29**	.35**	.18**
Child's emotional expression			.57**
R <sup>2</sup>	.09	.12	.42
F	28.52**	41.62**	108.97**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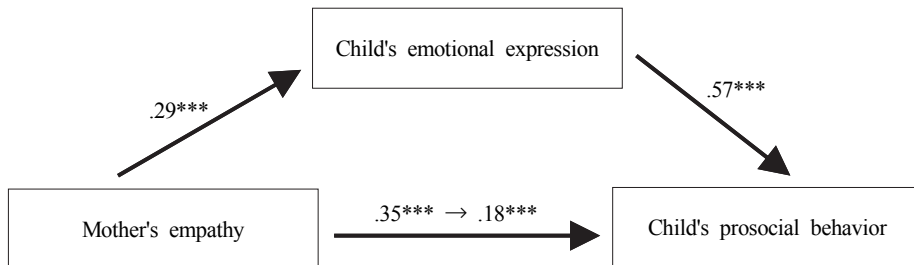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s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athy and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설명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공감과 매개변인인 유아의 정서표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4에서 보듯이 상관계수가 -.01에서 .39에 분포해 있었으며, 어머니 공감 전체와 유아의 정서표현 전체의 상관은 .29로 분석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만하지 않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고 Fig. 1로 요약하였다.

Table 5에서와 같이, 1단계와 2단계에서 어머니의 공감은 종속변수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매개변수인 유아의 정서표현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공감과 함께 매개변수인 유아의 정서표현을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  $\beta=.35 \rightarrow \beta=.18$ ). 즉,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유아의 정서표현을 매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공감적이고 수용

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하며 잘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여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표현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어머니의 공감정도가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은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H시에 소재한 2개 유치원과 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 2-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10명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1세 이상인 어머니가 40세 이하인 어머니들에 비해 공감 정도가 높았다. 41세 이상 어머니

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적 관심을 보이며, 영화나 책에 나오는 역할을 상상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정서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겪는 개인적 고통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전문대졸 어머니가 고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에 비해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에서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전문대졸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고 대인관계 등의 긴장 상황에서 정서적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이 부적 상관을 보였으므로 관점취하기가 높다면 개인적 고통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대졸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관점취하기도 높았고 개인적 고통도 높았다. 전문대졸 어머니의 질문지 응답 성향으로 인해 우연히 나타난 결과 인지를 알기 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차이를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보면 전문대졸 어머니들의 반응경향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문대졸 어머니들이 고졸이나 대졸 어머니들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고 개인적 고통을 느끼는 정도도 높다고, 연구결과를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에 있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감정이입과 정서조절, 지도성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다. 나누기와 도움주기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또래 놀이를 주도하는 정도가 남아보다 높음에 비해 놀이감을 또래와 나누고 또래를 돕는 행동은 성차가 없었다. 이는 유아의 발달특성상 자아중심성이 높아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는 것에는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없으나, 대인관계의 측면인 감정이입이나 지도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서표현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정서인식과 표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대인관

계의 측면인 타인의 정서 인식이 더 높다고 논의할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차이는 2세 유아가 3세 이상의 유아들에 비해 또래들과 놀이감을 나누는 행동을 낮게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3세 유아가 4세 유아에 비해 또래들과 놀이를 주도하는 지도성이 높았다. 정서표현에 있어서는 3세 유아가 4세 유아에 비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도가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이 증가한다는 연구들(Jang et al. 2003; Kim 2003)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3세 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이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Seong(2007)의 연구에서도 3세 아의 정서표현이 4세 아보다 높았다. 이는 3세가 되어 언어 표현이 크게 발달하면서 유아의 정서표현도 증가하고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유아의 정서표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공감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유아의 정서표현과 상관이 높았다. 특히 어머니가 공감적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취하기가 높은 것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과 상관이 높았다. 어머니가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역할을 상상하는 정도 역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과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개인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정서표현과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타인의 입장을 취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역할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고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긴장 상황에 압도되는 고통을 크게 느낄수록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어머니의 공감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와 달리 어머니 자신이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공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의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Yoon(2010)의 고찰을 지지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공감 정도는 직접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유아의 정서표현을 높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의 정서인식과 표현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으로 연구되었으나 질문지법에 의한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평가하므로 평가자의 특성과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 둘째, 유아의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평가 뿐 아니라 아버지 혹은 교사의 평가를 함께 조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유아의 정서표현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공감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연구라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의 역할 교육에 공감능력 증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Ahn EY(2007)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pp47-50

An RR, Park HY(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5-year-old Children's Emotional Recognition, Social Competence and Peer Acceptance. Korean J Child Educ 26(1), 271-293

An RR(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mother's emotionality and the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pp79-107

Aspy DN(1975) Empathy: Let's get the hell on with it. Couns Psychol 5(2), 10-14

Barone RB, Kenny D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es: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 Soc Psychol 51(6), 1173-1182

Cha JH(2012)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skills: The mediating effects of attention control and empathy. PhD thesis, Konkuk University pp54-73

Chang SH(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social perspective taking : In terms of sharing · don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33-45

Davis M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Sel Doc Psychol 10, 85

Davis MH(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Westview

Early childhood education dictionary(2003)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605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n Books

Han HJ(2003) Empathy of playtherapists and emotional bond felt by client children with therapis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19-25

Hong DS(1980) The effects of concreteness, balance, and sex on the ratings of pleasantness and willingness to change relationship in triadic social relation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9-27

Hong HR(2008)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Maternal Socialization Beliefs and Strategies on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p29-42

Hong KM(2005)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level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7-11

Hwang MS(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family status and mother parenting style to young child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pp20-25

Hwang SH(1996)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prosocial training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ith reference to children's age, sex, and temperament. PhD Thesis, Donga University, p18

Jang YS, Kang GS, Kim HJ (2003)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 Child 24(4), 41-53

Kang SS(2004) The effect of empathy training program on the enhance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p27-36

Kim EJ(2004) The influence of parental role intelligence on infant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39

Kim ES(2012) The effects of different parenting styles on peer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empathy.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pp19-30

Kim GS, Kwon SY, Park SS(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concept, prosocial behaviors. Open J Early Child

- Educ 8(1), 253-270
- Kim JH(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3-and 5-year-olds' emotion language and emotional behavior according to peer conflict situa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43-50
- Kim JS(2000)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involvement.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pp44-52
- Kim KS(2002) Studies on the influ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of parents attitud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pp43-49
- Kim KY, Jung HW(1998) The relationships of home environment and personal factors to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 Analysis of sex & age.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6(11), 103-117
- Kim MA(2011a) The effect of mother's emotional empathy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pp51-58
- Kim MJ(2011b) Impact of parent-child attachment on prosocial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pp25-37
- Kim SY, Seo HA(2002) The effects of picturebooks and activities using picturebook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J Future Early Child Educ 9(2), 1-33
- Kim YO(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teachers and their adjustment behavior.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23-24
- Kim YO(2005) A study on korea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locale. J Korean Early Child Educ 25(3), 51-76
- Lee BR(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of parents psychological attitud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ect. PhD Thesis, Chung-Ang University, pp25-29
- Lee HR(2005) The relationship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and play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pp30-34
- Manh PP(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multiple intelligences: Comparison of Vietnam and Korea. Docto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pp61-77
- Moon SM(2006)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emotional empathy,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p42-59
- Park EJ(2010) The effect of parent empathy on younge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role of younger children's self-esteem.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pp36-37
- Park KJ(2002) Antecedents of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er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37(1), 79-89
- Ren RX(2002)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pp35-38
- Rogers CF(1975) Empathy: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 Psychol 5, 2-10
- Saarni C(1990)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alovey P, Mayer JD(1996)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 Cogn and Pers* 9, 185-211.
- Seo MG(2006) The effects of empathy and self-disclose training group counseling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54-59
- Seo SJ(2005) The effect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variables on children's maladjustment capacity.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6(1), 73-86
- Seong HS(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pp39-59
- Wispe LG(1972) Positive forms of social behavior; An overview. J Soc Issues 28, 1-19.
- Yoon HK(2010) Effects of the father's emotional empathy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on the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p20